

# 브루스윌리스 아내 “내 남편에게 소리치지 마”



▲ 브루스 윌리스(왼쪽)와 엠마 헤밍 윌리스. 사진=facebook(Emmahemingwillis)

할리우드 배우 브루스 윌리스(67)의 아내이자 모델 엠마 헤밍 윌리스(44)가 파파라치들에게 자제를 요청했다.

엠마 헤밍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내 남편의 외출 모습을 독점해서 찍으려는 사람들에게 말한다.”며 “(남편과) 거리를 두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치매에 걸린 사람을 돌볼 때는 그 사람을 바깥으로 데려가 안전하게 인도하는 것으로도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커피 한 잔을 사려고 할 때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연예 매체들은 5일 브루스 윌리스가 지인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러 나온 모습을 포착해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관계자, 유튜버 등은 윌리스에게 접근을 시도하거나 질문을 쏟아냈다. 이에 엠마는 “내 남편이 친구들과 외출한 모습을 찍은 영상과 기사들을 봤다.”며 “그들은 (치매 환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엠마는 “개인 공간을 존중해 달라.”며 “내 남편에게 어떻게 지내는지 묻거나 크게 소리치지 말아 달라. 우리 가족, 그와 외출하는 사람 누구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윌리스 가족은 윌리스가 전두측두엽 치매(FTD)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 휴 잭맨, 하루 8천 칼로리 섭취 ... ‘올버린’ 역 위해

배우 휴 잭맨(54)이 내년 개봉 예정인 영화 ‘데드풀3’에서 올버린 역을 소화하기 위해 매일 고열량 식단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 잭맨은 최근 그의 인스타그램에 ‘벌킹’ (몸 키우기)이라는 설명과 함께 자신의 식단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에는 한 끼 식단인 감자를 곁들인 연어, 치킨버거, 소고기 등심 등이 들어있는 음식 용기를 담았다. 한 끼 식단의 총 열량이 8천300cal에 달한다.

그는 사진과 함께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적절하게 음식을 섭취하면서 다시 올버린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셰프 마리오에게 감사하다.”고 적었다.



▲ 데드풀 촬영을 앞두고 벌킹을 위해 운동 중인 휴 잭맨. 사진=instagram(thehughjackman)

휴 잭맨은 식이요법과 함께 엄격한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스타그램에 고강도 근육운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다.

휴 잭맨은 2000년 ‘엑스맨’에서 처음으로 올버린을 연기해 세계적인 스타로 발돋움한 이후 17년 동안 9편의 영화에서 이 캐릭터를 전담했다. 그는 2017년 영화 ‘로건’을 끝으로 올버린 역을 더는 맡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혹독한 운동과 식이요법을 지속하기가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그와 친분이 두터운 배우 레이놀즈가 영화를 함께하자고 끈질기게 요청하면서 결국 이번 역할을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 한인 여성, ‘캐네디언 스크린 어워드’ 최고감독상 후보



▲ ‘2023 캐네디언 스크린 어워드’ 최고감독상 후보에 오른 글로리아 김. 사진=academy.ca

‘2023년 캐네디언 스크린 어워드’ (Canadian Screen Awards) TV 드라마 부문 최고감독상 후보에 한인 여성이 이름을 올렸다.

7일 어워드 주최 측인 캐나다 최대 규모 비영리 전문 예술단체인 캐나다 영화·텔레비전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글로리아 김(한국명 김의영) 감독은 공영 방송 CBC 드라마 ‘하트랜드’ (Heartland)로 올해 스크린 어워드 TV 드라마 부문 최고감독상 후보에 선정됐다.

하트랜드는 앨버타 목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가족 드라마로 넷플릭스 TV 프로그램 부문 상위 10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고감독상은 아카데미 회원과 관련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투표로 결정되며 다음 달 16일 토론토에 있는 메리디안 홀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4천여 명의 전문 예술인을 보유한 캐나다 영화·텔레비전 아카데미는 매년 캐나다 스크린 어워드를 열고 있다.

한편 김 감독은 서울에서 태어나 3살 때 부모와 함께 캐나다로 이주해 토론토에서 성장했다. 런던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으며 잡지사 기자로 일하다 영화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2020년 영화 ‘퀸 오브 더 모닝 캠프’으로 캐나다영화제(CFF)에서 최고 감독상을 받았다. CBC 드라마 ‘머독 미스터리’ 등 다수의 단·장편 작품을 감독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 백천 운명철학원

뉴욕, 맨하탄에서 20년 만에 Laguna Woods, Irvine으로 이전!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선생



백천 선생 (白泉 先生)

한국역술인협회 미주지구 회장  
국제 예언가협회 이사장  
1976. 한국역술인협회 정회원  
1977. 대한 경심연합회 중앙감찰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2008. 한국 역술인협회 부회장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신재사공초재이방택이아상  
수주합혼혼사향일름호호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예정운/ 부부운/ 자녀운/ 직업운/ 사업운/ 재물운/  
학업운/ 주택구입시기/ 이사운/ 집매매운/  
풍수지리/ 방향/ 건강운/ 대인관계/ 동업운/  
관재/ 소송/ 삼재풀이/ 방책예방/  
\*부부 특별 상담 (숫자운)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전화상담만 받습니다.

전화 (213) 500-6363  
상담 (909) 347-0505

\*Zelle 또는 Venmo로 송금해주세요.

2381 Via Mariposa W #2h, Laguna Woods, CA 92637